중앙불전 문인 '불교 생태학'으로 읽다

〈만해 · 김달진 · 조지훈 · 서정주〉



주목! 학술서 김옥성의 〈한국 현대시와 불교생태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 서정주, 김달진, 조지훈은 한국 현대 시단을 이끈 선지식들이다. 이들은 모두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현대 불교문학의 비조(鼻祖)인 만해 스님(1879~1944)은 명진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1918년 중앙학림 강사로 취임했다. 서정주(1915~2000)는 1933년 박한영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개운사 대원암 내 중앙불전에 입학했으며, 김달진(1907~1989)은 1936년 중앙불전에 입학해 1939년 졸업했다. 조지훈(1920~1968)은 1938년 중앙불전에 입학해 1941년 불전이 개칭된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이들은 불교적 시학 세계를 펼치며 한국 현대 시단에 큰 족적을 남겼고, '중앙불전 문인'이라는 독특한 계보를 형성했다.

김옥성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출간한 학술서 〈한국 현대시와 불교생태학〉은 현대 불교 문인들의 작품에 담긴 불교적 상상력과 생태 사상에 대해 분석했다.

연기론과 윤회론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사상은 가장 생태주의적인 종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하며 한국인의 의식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현대 시인들은 불교의 순환과 영원성, 생태주의적인 요소를 수용하고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김옥성 교수는 "불교 교리는 생태주의적인 사상들로 충만하다"면서 "만유의 인과성과 상호의존성을 담고 있는 연기론은 불교사상의 생태주의적 면모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연기론은 근대과학과 신과학 차원에서 근대적 가용성, 대안과학의 가능성이 진단됐다. 연기론은 불교가 갖는 현대사회에서의 적응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불교의 연기사상에 호흡을 댄 연기적 상상력은 불교 계열 시인들의 시에 폭넓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해 등 현대시단 선지식들
'불교생태학' 관점서 조명해
중앙불전 출신 文人 공통점

만해, 연기론 입각 생태사상
"탈근대적 관점서 시사점 커"



만해 김달진 조지훈 서정주

저자는 만해 스님의 평등주의와 구세주의, 조지훈의 생명과 사랑의 시론까지, 한국 현대 시문학사에서 생태주의적인 사유와 상상을 바탕으로 불교적 시학을 전개해온 시인들의 문학론을 조명한다.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전개되는 현대 미학으로서의 불교적 시학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한국 현대시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교 생태학적 상상력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혀낸다.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불교적 시학, 불교 생태시학, 선적 미학 등의 개념을 고찰한다. 불가 계열 시인으로 대표되는 만해 한용운, 김달진 등의 문학을 살펴본다. 생태 사상에 기반한 만해 스님의 시 세계를 살펴보자.

저자는 만해 사상의 요체는 "불교를 토대로 한 근대의 수용과 탈근대적 비전"이라고 봤다. 만해 스님은 불교를 사상적 기저로 선택해 유교적 국수주의와 거리를 뒀고, 비판적으로 근대를 수용해 기독교 · 이슬람교 · 유교 · 불교 등의 미신적 요소를 비판했다. 나아가 불교를 토대로 근대 계몽에 대한 계몽의 자세를 취하며 탈근대적 전망도 확보한다.

만해 스님은 자연에 인과론적 질서가 내재하며, 과학적 지식과 이성으로 물질과 에너지 세계의 인과론을 파악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만해의 생태주의를 "만물이 평등하며, 인과론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는 만물이 펼치는 인과론적 상호작용의 유기체"이며 "타자는 인과론적으로 자아를 탄생시키는 원인자이므로 어버이와 같다. 타자를 존중하고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대과학과 불교의 선택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만해의 생태주의는 최근 근대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급부상한 생태학 담론에도 뒤지지 않는 참신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해의 생태주의는 탈근대적 전망으로서 동양 사상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오늘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강조했다.

미당 서정주가 보여준 작품 세계 속 '중생일가관'은 만해의 사상과 유사하다.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세계를 유기적 전체로 파악하고 자아와 우주의 구성원들을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며, 나아가 자아와 우주 전체를 동일시한다. 차이점도 존재한다. 미당은 삼국시대 역사에서 '오래된 미래'로서 선조들의 세계관을 찾았고, 이를 근대 미학의 영역으로 끌어 올려 자신의 고유한 사상과 시학 체계를 세웠다.

저자는 "만해와 달리 미당은 불교적-신비주의적 세계관으로 근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결코 외부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한다"면서 "비록 환원론적 오류를 안고 있지만 근대와 불교를 화해시키면서 독자적인 생태사상과 사학의 틀을 견고하게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조지훈 시인은 유가 계열 시인으로 인식되지만, 유불선을 비롯한 동양적 사유를 전개하며 다양한 종교적 시학의 관점을 보여줬음에 저자는 주목했다. 이외에도 불교적 관점에서 간과된 시인들의 불교적 사유를 다양하게 밝혀내며 불교시의 문학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논의한다.

이와함께 저자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불교 생태시학은 미학적이며 윤리적 의미를 가짐을 강조한다. 그는 "산업화 시대 이전 시인들의 불교 생태사상과 상상력은 후배 시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생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미래의 시인들에게도 풍요로운 생태시학을 위한 시적 자양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현대시사에서 불교 생태학적 상상력은 해체주의 · 파괴주의 · 반생태주의에 맞서 서정시의 본령을 고수해온 만큼, 차후에도 시대적 요청에 반응하면서 한국시의 미학성과 윤리성을 지켜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韓교육 문제, 불교서 길을 묻다

불교평론 봄호서 특집 다뤄
가정 · 학교 · 대안교육 분석
불교적 관점서 해결책 모색
1월 열반 틱낫한 스님 추모



한국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특집을 다뤘다.

만해사상실천회는 3월 1일자로 〈불교평론〉 2022년 봄호(통권 89호)를 발간했다. 봄호 특집으로는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와 불교'가 마련됐다.

이번 특집에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의 실태와 그 부작용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다. 특집 논문으로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비롯해 △바람직한 가정교육을 위한 불교의 지혜(정대련) △학교교육 현실과 불교(신희정) △사회교육의 현실과 불교적 대안(이송곤) △사교육 문제의 고통과 불교적 해법(박범석) △대안교육의 방향과 불교적 접근(법인 스님) 등이 실렸다.

특히, 박병기 교수는 "교육문제로 인한 고통은 개인적 고통임과 동시에 사회적 고통"이라며 "'고립성과 이기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이라는 서구 근대의 계몽주의적 인간관은 이제 상호의존적 인간관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상사 작은학교 이사장 법인 스님은 척박한 불교계 대안학교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공간, 수행, 문화 등의 토대와 토양은 대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자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와 시민성을 뛰어넘는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대안교육에 적합한 방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모특집으로 지난 1월 열반한 틱낫한 스님을 기리는 지면을 마련했으며, 논단에서는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서구 불교의 학문적 형성과 전개'를 통해 서구에서 불교가 학문적 대상으로 떠오르는 과정을 살펴보며, 서구의 종교학적 방법론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분석했다.

기획시리즈 세계의 불교학자는 중국 근대 불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어우양젠(歐陽漸)과 독일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다.

불교소설은 지난해 유심작품상을 수상한 여류소설가 이경자 씨가 신작 단편 〈낙산사〉를 선보여,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사찰의 의미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메타버스 불교콘텐츠 만들어 볼까

문화재청,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3월 28일부터 4월 30일 접수
디지털 전시 · 메타버스 분야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관련 대국민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는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분은 △디지털 기획 · 콘텐츠(디지털 문화유산 활용 아이디어, 3차원 입체(3D)모델링, 3D 프린팅 등) △문화유산 메타버스(아바타 디자인, 오브젝트 모델링 등) 2개 분야이며,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8일부터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참조하면 된다.

부문별로 기획력, 창의성, 활용도, 대표성, 충실성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본선 우수팀(또는 개인)을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과 조언을 거쳐 분야별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총 2600만원 규모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022 디지털문화유산전'(6월 예정,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특별전시와 함께 진행되며, '경주 국제문화재산업전(9월)'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디지털의 일상화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수요가 급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